

# 복약횟수 줄이고 내성문제 해결 제약업계 '독감치료제' 개발 속도

독감 치료제 시장에서 제약업체들의 경쟁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11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서울대학교 화학부 이연 교수 연구팀과 함께 새로운 독감 치료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수입약 '타미플루'로 알려진 항바이러스제 성분 '오셀타미비르'의 내성 문제를 해결하고, 복약 횟수를 기존 10회에서 1회로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대웅제약은 오셀타미비르 유사체인 '구아니딘 오셀타미비르'라는 화합물에 주목하고 있는데, '구아니딘'을 가진 구아니딘계 화합물은 전기적 인력을 통해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단백질 효소에 결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웅제약은 '구아니딘 오셀타미비르'가 내성이 생긴 바이러스와 항바이러스제의 결합 친화도가 감소하는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고, H274Y, H275Y 등 광범위한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물질은 생체이용률이 4%대로 매우 낮아, 대웅제약과 서울대 연구팀은 '프로드럭' 기술을 적용해 생체이용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화학구조를 새로 설계한 이 신규 화합물은 세계 최초이며, 서울대와 한국화학연구원 동물 실험에서는 거의 100%에 가까운 생체이용률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은 '약물 전달 시스템' 기술도 적극 활용한다. 장기지속형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결과, 복약 횟수도 획기



ChatGPT에 의해 생성된 독감관련 이미지.

**대웅제약 '타미플루' 내성 해결 복약횟수 10→1회 개선 연구중**  
**한미약품 개량신약 '한미플루' 타미플루 특허 직후 시장 공략**  
**GC녹십자 정맥주사 '파라미플루' 15~30분 1회 투여로 독감 치료**

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기존 타미플루의 경우 5일 동안 10회를 복용해야 했으나, 대웅제약이 연구하는 약물은 단 1회 복용이 가능해진다.

국내에서도 '신종 플루'로 불리며 대유행을 겪었고, 매년 유전자 일부가 변형되어 주기적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성 전염 질환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셀타미비르 성분의 독감 치료제 시장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것이 국내 제약 업계의 중론이다.

다만, 타미플루의 시장 점유율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국산 오셀타미비르 제제는 제네릭 의약품으로 출시된 데 그쳤다.

국내 제약사 중에는 한미약품이 지난 2016년 '한미플루'를 발매하게 내놓은 바 있다. 한미플루는 인플루엔자 A형과 B형에 효과가 있는 치료제로, 한미약품은 기존 '타미플루'의 염을 변경해 개량신약에 준하는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아 타미플루 물질특허가 끝난 직후 해당 시장을 공략했다.

한미약품은 한미플루 용량과 제형을 다양하게 변경해 제품군을 확장하기도 했다. 이후 유한양행의 '유한엔플루', 종근당의 '타미비아' 등이 국내 오셀타미비르 시장에서 경쟁을 이어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GC녹십자는 수액제처럼 맞는 정맥주사 제형의 독감 치료제 '페라미플루'로 독감 치료제 시장의 흐름을 바꿔 왔다. 통상 5일에 걸쳐 먹어야 하는 경구제와 달리 15~30분이 소요되는 1회 투여만으로 치료할 수 있어 각광받고 있다는 것이 GC녹십자 측의 설명이다.

이처럼 투약 편의성을 갖춘 페라미비르수화물 성분의 주사제로는 종근당의 '페라퀀스프리믹스', JW중외제약의 '플루엔페라' 등이 잇따라 등장해 독감 주사제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물류 등 美 기업 3곳, 한국에 1120억 투자

산업부, 뉴욕서 UPS 등 투자 신고식

첨단소재·물류 등 3개 기업이 우리나라에 1120억원 규모 투자를 신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이 미국 방문 기간 중인 1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개최한 UPS(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 투자 신고식을 포함해 Toray(도레이첨단소재), 반도체용 특수가스 제조업체 A사 등 총 3개 기업이 1120억원 규모 대한 투자를 확정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UPS는 1907년 설립 이후 세계 최대 화물특수기업으로 자리잡았으며, 한국에서는 인천국제공항 특송화물 처리센터를 중심으로 물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투자는 인천공항 내 화물처리 시스템을 첨단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속한 화물처리 역량 확보를 통해 국내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



망이다.

이번 미국 투자신고식에 한국에서도 같은 날 첨단산업 분야 2개 기업이 투자신고를 접수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디스플레이, 적층형세라믹콘덴서(MLCC) 등에 사용되는 첨단 소재인 폴리에스터 필름 생산시설을 증설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A사는 한국에서 반도체 제조공정 중 핵심공정인 식각, 세정 등에 사용되는 특수 가스를 생산중이며, 이번 투자를 통해 반도체 선단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 제조시설을 증설할 계획이다. 2건의 투자는 국내 첨단소재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국내 반도체 산업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시놉시스-앤시스, 기업결합 의견 청취

공정위, 경쟁 제한성 등 심사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시놉시스(Synopsys, Inc.)와 앤시스(ANSYS, Inc.)의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사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 건은 시놉시스가 앤시스 주식 100%를 취득하는 것으로, 거래 금액은 약 45조9000억원(약 350억달러)이다.

시놉시스와 앤시스는 반도체 칩 설계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자설계자동화(EDA)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공정위는 지난 5월 31일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심사에 착수했다.

EDA 소프트웨어는 복잡·다양한 반도체 칩 설계의 자동화를 구현한 소프트웨어로 반도체 칩 설계와 설계된 칩

의 기능적·물리적 검증에 위한 툴 일체를 포함한다.

공정위는 본건 기업결합이 반도체 칩 설계 과정에서 사용되는 DEA 소프트웨어 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방해 등을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을 면밀히 심사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AI반도체(뉴로모픽 프로세서 등), 고대역폭 메모리(High Bandwidth Memory) 등 향후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 될 첨단 반도체의 설계·생산과정에서 EDA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최근 몇 년간 관련 시장 규모도 지속 성장하는만큼 본건 기업결합이 경쟁 상황에 미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 유한양행, 레이저티닙 기술료 804억 받는다

얀센에 표적항암치료제 기술 수출 '레이저티닙' 병용요법 상업화 성과 마일스톤 수령액, 연 매출의 2.5%

유한양행은 11일 얀센바이오테크에 기술수출한 EGFR(사구체여과물) 표적 항암 치료제 '레이저티닙'에 대한 상업화 기술료 6000만 달러(약 804억원)를 수령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이번 마일스톤은 유한양행의 '레이저티닙'과 얀센 바이오테크의 이중항암항체 '아미반타맙(제품명 리브레란

트)'과의 병용요법 상업화 개시와 관련된 성과에 따른 것이다.

레이저티닙은 3세대 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아미반타맙과의 병용 치료는 EGFR 돌연변이와 MET 증폭과 같은 저항성을 가진 환자들에게 특히 주목받고 있다.

유한양행은 이번 마일스톤 수령 금액인 6000만달러가 회사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1조8590억원)의 약 2.5%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마일스톤 금액은 60일 이내에 수령 예정이다.

유한양행은 이번 성과가 회사의 지속적인 글로벌 R&D 전략과 혁신적인 항암 치료제 개발의 성과를 입증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얀센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레이저티닙 병용요법의 상업화 및 추가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성과로 유한양행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세경 기자 seilee@



유튜브 영상 제공



# "댐 건설, 공감대 형성 지역 우선추진"

김완섭 환경장관, 첫 기자 간담회

김완섭 환경부 장관(사진)은 11일 기후대응댐 건설과 관련해 "댐 건설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는 곳부터 먼저 기본구상 등 일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완섭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6층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통해 "지역주

민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소통하고 공감대 얻어가며 기후대응댐 건설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기후대응댐을 반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설을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약속 여부는 대답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다"라며 "댐 후보지를 발표한 지 한달 좀 넘었고, 지역설명회를 하고 있다. 반대하면 (댐 건설을) 하



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댐 주변 보상금으로 얼마든지 파크골프장 만들 수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 "일부에서는 지역경제를 위해 전국 단위 파크골프 대회를 하고 싶어 한다. 지역에 도움이 될 수도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으로 충분히 지원하고, 기획재정부와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환 기자 kdh@

# 현대차·기아, 신용등급 'AAA'로 상향

전반적 채무상환 능력 '최고수준'

현대자동차그룹 핵심 계열사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신용 등급이 연이어 상향되고 있다. 현대차·기아의 제품과 브랜드 경쟁력,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등이 높게 평가받은 것을 의미한다.

현대차그룹은 국내 3대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가 현대차와 기아의 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최고 등급인 'AAA'로 상향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신용평가는 현대차그룹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제시했다.

이번에 현대차와 기아가 받은 AAA 등급은 19개로 이뤄진 한국신용평가의 신용등급 체계상 가장 높은 등급으로 전반적인 채무 상환 능력이 최고 수준임을 의미한다.

한국신용평가는 "현대차와 기아가 국내 시장에서의 확고한 시장지위와 개선된 제품경쟁력 및 브랜드 인지도



현대차그룹 양재동 본사.

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며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 다양한 시장수요에 대처 가능한 기술과 생산역량이 업계 최상위 수준이며 지속적인 투자로 시장 변화 대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AAA 등급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국신용평가는 "지속 성장 중인 이익창출 규모,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 실현, 우수한 재무안정성 유지 등도 현대차·기아의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양성운 기자 ysw@